2019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19.10.01.(화) 16:00~18:30	장 소	본관 3층 대회의실
참석자	[13명] 이승렬(의장), 권영찬(부의장), 남효덕, 서인덕, 구춘권, 김문주, 김정숙, 신동훈, 김상수, 최정호, 이정형, 문영조, 최성욱		
불참자	[1명] 황도삼		
배석자	서정숙(대학원장), 이광수(대학원 행정실장) 이종승(부속병원 기획부장), 김인배(기획예산팀장), 김효성(기획예산팀), 김정민(기획예산팀) 손재호(부속영천병원장), 서종준(사무부장), 구본주(기획재무팀장) 김병주(기획처장), 배재완(예산팀장)		
기록자	김만석(간사), 이교인		
안 건	<심의> 대학원학칙 개정(안) <자문>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자문>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1 회의요지(내용)

가. 개회

○ 이승렬 의장 :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2019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을 부의하다.

나. 안건 1 : <심의> 대학원학칙 개정(안)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서정숙 대학원장 :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서인덕 : 정원조정 문제는 관계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정숙 대학원장 : 정원조정 문제는 기존에는 대학원에서도 일정한 교수충원율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 5%의 정원이 삭감되도록 되어있었으나 2020년도부터는 신설되는 학과의 정원이 대학원 총 정원 안에 있을 경우 교수충원율과 상관이 없다고 하다. 따라서, 자동차공학과 석사학위 과정은 일반대학원의 총 정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촉받지 않아 교수충원율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만아니라, 일반대학원의 총 정원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신설이 가능하다고 하다.

○ 권영찬 부의장 : 회의자료에는 유기신소재공학과의 재적생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학생은 몇 명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서정숙 대학원장 : 이 재학생 13명이 같은 과이기 때문에 교수도 같이 넘어간다고 하고, 형태를 화학공학과의 고분자바이오소재공학과전공으로 신설하여 재학생도 옮겨간다고 하다. 지난회의에서 질문하셨던 외국인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필요시 삽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도비 문제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화 형태로 계산해서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지도교수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다.

○ 이광수 대학원 행정실장 : 외국인은 한국인이나 외국 국적 소유자인 경우와 순수외국인의 경우 등 2가지로 구분되는데, 외국국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특강시 영수증을 받고 한화로 직접 지급을 하거나, 외국으로 송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한다고 하다.

○ 서정숙 대학원장 : 이광수 실장이 부연 설명한 원칙에 준해서 외국인 지도교수 활용시 적용하면 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고 하다.

다. 안건 2 : <자문>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서인덕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수입예산중 의료수입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합한 비용을 제외한 차액 241억원과 의료외비용에서 155억원의 수익과 47억원의 지출 발생에 따른 차액이 약 107억원 발생하여, 총액 348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다.

○ 김정숙 : 동산병원이 성서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 대학교 병원이 누린 것은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최근 우리 병원의 임상파트 강화를 목적으로 스텝진을 많이 확보하였고, 문재인케어와 관련하여 선택진료가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특진비 제도가 없어져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많이 몰리는 영향도 있다고 하다. 성서동산병원, 칠곡경대병원 등 외곽으로 빠진 병원들로 인해 지리적으로 시내에 인접한 위치에 있는 우리 병원과 가톨릭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다.

○ 신동훈 : 라오스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 컨설턴트 서비스 사업비와 관련하여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 자문을 하는 것으로써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으로 책정한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수입예산에서 라오스의 선수금 수입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컨설팅 관련 업체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예산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다.

○ 신동훈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사업 예산이라 하고 국고 수입에 따른 지출 예산을 책정한것이라고 하다.

○ 김문주 : 라오스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 컨설턴트 서비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우리 병원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컨설팅 사업에는 설계감리, 의료기기 구입, 집기비품 구입, 전산장비 구입, 네트워크 운영 방안, 병원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다.

○ 신동훈 : 라오스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 컨설턴트 서비스 사업은 우리 병원의 이윤 추구보다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봉사의 성격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다.

○ 서인덕 : 수익사업이 아니라 라오스에 선진 의료 시스템을 보급하고 자문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다.

○ 최정호 : 앞에서 언급한 수입예산 편성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직원수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김인배 부속병원 기획예산팀장 : 본예산 대비 인원을 증원한 이유는 권역응급센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부분에 대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법적인력 충원, 병상 증설, PA간호사 투입, 권역응급센터의 병상 증설 운영, MRI, CT 장비 추가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에 따라 증가한 직원수라고 하다.

○ 남효덕 : 지출예산의 외주용역비 중 외부판독 의뢰비와 관련하여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인배 부속병원 기획예산팀장 : 그렇지 않다고 하다. 정년퇴임하는 교수의 후임 교수 미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끔 외부판독 의뢰가 있다고 하고, 이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하다.

○ 김문주 : 라오스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 컨설턴트 서비스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과 영남대학교의 위상 제고 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다.

○ 김문주 :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 컨설턴트 서비스 사업이 처음이라고 하고, 수익보다는 해외진출 경험을 축적하여 추후 동남아 지역의 진출을 도모한다고 하다.

○ 김상수 :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지 위탁으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영남이공대학과 공동으로 직영한다고 하다.

○ 김상수 : 의료원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자녀수와 연간비용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연간 비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추후 파악하여 답변하겠다고 하고, 인원은 대략 15명~20명 수준이라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권영찬 : 대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인상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임금 인상 예산을 3%로 편성하였다고 하고, 내년에도 인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얼마전 타결된 서울의 국립암센터의 임금인상 결과를 보면 약 4%의 인상이 있었다고 하고, 보건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6%~11%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을지대병원은 약 7%대로 인상하였다고 하고, 우리 병원은 3% 인상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다.

○ 권영찬 : 15페이지의 전출금이 다소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추후 병원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학교 전출금을 점차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추후 법인 및 학교 예산팀과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다.

○ 김문주 : 9페이지를 보면 사학연금 부담금이 늘어나고, 퇴직금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연금 부담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연금 부담률 이외에는 개인 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법적 부담금이 높아진 것이라고 하다.

○ 김인배 부속병원 기획예산팀장 : 사학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법적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인력이 증가한 것도 있다고 하다.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줄어든 것은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 전환 시점에 따른 현상이라고 하고, 입사후 1년~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하던 제도를 현재는 6개월이 경과하면 전환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1년 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급식재료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김인배 부속병원 기획예산팀장 : 작년에 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식수인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체 급식에서 조리할 수 있는 메뉴의 종류나 양이 한정되다 보니, 지속적인 양질의 메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따른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 급식재료비가 다소 줄었다고 하다.

○ 김상수 :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 농성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접촉하거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의 관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인배 부속병원 기획예산팀장 :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다.

○ 김상수 : 안전상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인권적이나 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병원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을 억지로 뒤집지 않는 이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다.

○ 서인덕 : 모두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이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이승렬 의장 : 제안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다.
○ 전의원 : 동의하다
○ 권영찬 : 2019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의료원 교직원과 영남대학교 교직원 간의 진료비감액 혜택의 차이 개선 권고” 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경과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진료비 감액 차이 개선과 관련하여 2014학년도에 대학평의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한 바 있다고 하고, 의료원 교직원의 진료비 감액은 노사교섭에 의해 임금 및 복지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써 임금 체계가 다른 대학 교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다.
○ 김상수 : 그런 논리라면 왜 법인 교직원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병원을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법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 교직원에게는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법인 교직원은 인원이 몇 명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대학 교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공대학 교직원 또한 동일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다.
○ 김상수 : 법인 교직원은 되고 대학과 이공대학 교직원은 안된다는 것은 부장님의 형평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다고 하다.
○ 신동훈 : 병원 경영진에게 다시 한번 건의해주시기를 요청하다.
○ 김상수 : 이미 5~6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의료원 교직원과 영남대학교 교직원 간의 진료비감액 혜택의 차이 개선 권고” 를 재요청한다고 하다.
○ 이종승 부속병원 기획부장 : 병원 경영진에게 최대한 전달하겠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라. 안건 3 : <자문>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신동훈 : 진료 실적이 다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응급실 의료진 구인 및 간호사 구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퇴직한 간호사들에 비해 신규 충원되는 인원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하다. 따라서, 기존 인력을 공휴일, 야간 근무할 것 없이 추가 근무로 투입하는 현실로 인해 진료 실적이 다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다.
○ 신동훈 : 간호사 기숙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있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신동훈 : 간호사 기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그렇다고 하다.
○ 김정숙 : 지난 학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올해에는 성서동산병원 개원 등으로 많은 간호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의 동산의료원도 규모를 추가로 300병상 정도로 확대함에 따라 충원이 증가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구에서 거리가 있는 우리 병원에 지원을 꺼리는 요인이라고 하고, 우수한 간호 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대구·경북소재 간호대학을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다.
○ 김정숙 : 구조적으로 영천지역이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라 장기적으로는 영천병원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영천지역의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면 병원 수익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하다.
○ 신동훈 : 하양에서도 영천병원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하양삼성병원 응급실 폐쇄에 따라 응급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도 다소 늘어날것이라고 기대는 하였으나, 오히려 반야월쪽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다. 간호사 충원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설문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간호사 생활관 유무보다는 대구에서 출·퇴근 거리와 비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대구소재 상급병원보다 우리 병원의 임금이 다소 낮다 보니 우수한 간호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다.
○ 서인덕 : 영천병원의 의료인력 뿐만아니라 직원의 정원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의사 정원은 40명, 간호사는 150명이라고 하다.
○ 서인덕 : 당장 필요한 간호사는 몇 명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올해 당장 20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고, 내년에 40여명 정도를 충원할 예정이라고 하다.
○ 김정숙 : 외지수당 등의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규정 개정도 필요하지만 영천병원 임의대로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다.
○ 김문주 : 영천병원의 급여 체계가 영대병원과 다른지와 노동조합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영대 병원과는 급여 체계가 다르다고 하고,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영대병원 노조와 동일한 지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급여 체계는 다르지만 임금 인상율은 동일하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서인덕 : 영대병원 간호사와 영천병원 간호사의 자격조건 등이 다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그렇지 않다고 하고, 채용에 필요한 자격조건은 동일하나, 진료율과 업무강도 등의 근무환경이 영대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급여 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하다.

○ 손재호 영천병원장 : 영대 병원은 3차 병원이다 보니 중한 환자들이 많고, 영천 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간호사 인력 수급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경력이 5년정도 되는 경력직들의 이직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하다.

○ 서인덕 :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간호사 인력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다.

○ 권영찬 : 영천병원 옆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인해 장례식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서종준 영천병원 사무부장 : 우리 병원 장례식장은 외주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운영하지만 인근에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운영업체로부터 임대료 하향 조정 요구가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마. 안건 4 :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최정호 : 우리 대학의 독립건물이 194개 동이나 된다고 하고, 30년이 넘게 노후된 건물이 55% 이상으로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수선 및 제반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다. 또한 상수도 배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며, 일괄 교체를 할 경우 비용이 약 100억원 이상 요구되는 등, 예산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 함께 대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는 우리 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하고, 등록금 인상이 쉽지 않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

○ 김문주 : 3차 교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10월 이사회에서 보고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그렇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김문주 : 직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재정투입과 관련된 예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사회의 책무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다.

○ 김문주 : 이런 재정적인 압박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학 상황이 매우 위기라는 말씀을 드리시는게 좋겠다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말씀해주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고, 아마도 이러한 위기를 절감하셨기 때문에 이사진 중에 한분이 50여억원을 기부하여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이 가능하였다고 하다.

○ 김문주 : 개인적인 기부 차원이라고 하다. 다른 대학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그렇듯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 이사회에서 재정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논의가 별로 없다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원리 원칙적인 논의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현 이사회 또는 우리 대학의 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 재산이 얼마되지 않아 재정 지원이 매우 어렵다고 하다. 사립 대학교 법인 중 재정 지원이 많은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이사진들이 자신의 돈을 투자하거나 외부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로 인해 외부 자금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이사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거라고 하다.

○ 구춘권 :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외부에 영남대학교의 얼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입학자원이 줄고 입학금도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학생 모집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학생모집을 위한 외부장학금이 줄어 그만큼의 학생모집이 안된것이라고 하다.

○ 최정호 : 작년 본예산 편성에 포함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등의 지자체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유치가 되었으며, 내년 지자체 지원금도 정상적으로 유치될 예정이라고 하다. 다만, 기존 타 지원기관의 2019학년도에 예측했던 일부 소수의 학생모집 예산이 감소된 상황이라고 하고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하다.

○ 김문주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최정호 : 연간 12억원 정도라고 하고, 이 지원금의 규모는 연간 약 50여명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외에 소수의 인원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어 특수대학원으로서 운영하는 데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다.

○ 김문주 : 대학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2016년 말에 당시 학교의 어려움에 따른 긴축 재정과 전반적인 예산 방향을 교육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원 부분에 대한 투자를

축소 계획이 수립된적 적 있다고 하다. 2017년도 결산시에는 대학원에서 20여억원의 등록금 수입감소가 났다고 한적 있었으며, 올해 수입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일반대학원 수입이 약 30여억원의 감소라고 생각하면 되는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배재완 예산팀장 : 통계를 살펴보면 2016학년도의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163억원이었으나, 2019학년도에는 131억으로 약 30여억원이 줄어든 것이 맞다고 하다.

○ 김문주 : 학교가 교육중심 대학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당초의 교육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하다. 일반대학원의 문제는 교육중심이냐 연구중점이냐가 아니라 최근 지방대학의 대학원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다.

○ 김문주 : 대학원 장학금 일부를 축소함에 따라 대학원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고, 학교 차원의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정책과 대학원 학생 유지 방안에 대해 대학원과 논의하겠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바. 기타 안건

○ 이승렬 의장 : 지난번 제6차 대학평의원회의에서 황도삼 의원이 제안한 대학평의원회 영문 명칭에 대해 영남대학교 평의원회는 “Yeungnam University council”, 평의원은 “Councillor”, 의장은 “Chairperson ”, 부의장은 “Vice-Chairperson”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김만석 기획팀장 : 제6차 대학평의원회의 제안 사항을 검토한 결과 2017년 제6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영남대학교 평의원회는 “Yeungnam University Senate”, 평의원은 “Senator”, 의장은 “Chairman”, 부의장은 “Vice-Chairman”으로 심의·결정되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Senate”와 “Senator”는 귀족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라고 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성격에는 평상적인 느낌의 “Council”과 “councillor”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하다. 또한, “Chairman”은 성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는 현실에 따라 “Chairperson”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대학평의원회 영문 명칭에 대한 기타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영문 명칭은 “Yeungnam University council”, 평의원은 “Councillor”, 의장은 “Chairperson”, 부의장은 “Vice-Chairperson”으로 결정하고, 협의를 마친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라. 폐회

○ 이승렬 의장 : 호선에 의하여 간인(서명) 의원으로 의장과 권영찬 부의장, 최성욱 의원을 선출하다. 제7차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각 의원에게 회의 종료 전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 심의결정사항

가. 안건 1 : <심의> 대학원학칙 개정(안)

-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나. 안건 2 : <자문>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의료원 교직원과 영남대학교 교직원 간의 진료비감액 혜택의 차이 개선 재 권고

다. 안건 3 : <자문>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2019학년도 부속영천병원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원안대로 자문을 마치다.

라. 안건 4 :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원안대로 자문을 마치다.

마. 기타 안건

-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영문 명칭은 “Yeungnam University Council”, 평의원은 “Councillor”, 의장은 “Chairperson”, 부의장은 “Vice-Chairperson”으로 심의·의결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2019.10.01.

평의원 확인	이승렬	권영찬	남효덕	서인덕
	의 장	부의장		
	구춘권	김문주	김정숙	신동훈
	황도삼	김상수	최정호	이정형
	문영조	최성욱		